

“시민 불편 적극 개선”...나주시, 연말까지 시내버스 노선 재조정



전남 나주시가 지난달 2일 대중교통 대전환을 통해 도입한 '나주급행 1번' 직행버스. (사진=나주시 제공)

나주시가 대중교통 개편 대전환 목표 달성을 위해 연말까지 시내버스 노선 재조정 기간을 운영한다.

19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앞서 지

10월 대중교통 개편 이후 이용 불편 민원 600여건 접수 버스 증차·운행 시간 수정·기존 노선 복구·급행버스 통합

난 10월2일 단행한 시내버스 노선 개편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 불편 민원을 적극 반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버스 노선 개편 이후 지난 한 달간 나주시가 누리집과 민원장구 등을 통해 파악한 불편 민원은 총 600여건이다.

주로 '160번과 999번 광역버스 배차 간격 조정 요구', '999번 노선 조정', '시내버스 출·퇴근 시민을 위한 도착 시간 조정', '잡은 환승에 따른 불편' 등으로 분석됐다.

나주시는 지난달 25일 시급한 조치가 필요했던 '160번 증차·배차 간격 조정', '100번 증차', '200·500·600·601번 운행 시간표 수정' 등을 중심으로 1차 노선 조정을 마쳤다.

여기에 11월 안으로 '101번(나주-반남-공산)', '200번(남평-다도-암정-덕림)', '201번(남평-다도-중장터-행산)', '402번(다도-봉황-빛가람-나주-영산포)', '403번(남평-봉황-영산포) 버스' 운행 시간표와 환승 연계 시간표도 수정할 계획이다.

중·고생 이용객이 많은 대호지구(정렬사입구-대방아파트-호반아파트)를 경유 하는 '999번 버스 운행'도 재개기로 했다.

주요 거점을 빠르게 오고 가는 급행버스는 '나주 급행 01번'과 '영산포 급행 02번'을 '급행 01번' 버스로 통합해 새로운 노선을 편성했다.

나주시는 시내버스 노선 조정과 함께 11~12월 두 달간 읍·면·동 20곳에서 열리는 이·통장협의회에 시장과 부시장 등이 직접 참석해 시내버스 노선 개선 추진 상황 등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대중교통 노선 개편 이후 다양한 장구를 통해 시민 불편 민원과 개편 방안을 폭넓게 접수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적극적인 개선에 나서고 있다"며 "노선 변경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항상 귀 기울이겠다"고 불편 민원 해결 의지를 강조했다.

앞서 나주시는 민선 8기 나주 대중교통 대전환을 목표로 지난달 2일부터 '광역버스-시내버스-마을버스'로 이어지는 노선과 주요 거점을 빠르게 연결하는 '급행버스' 노선을 새롭게 도입했다.

개편 노선안은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해 수개월간 버스 이용객 분석을 통해 마련했다.

하지만 비교적 젊은 인구가 많은 대도시권에 적합한 '환승 체계'를 본격 도입한 이후 고령층이 많은 농촌지역 노선을 중심으로 버스 이용객 불편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나주=기동취재본부

구례군, 신규공직자 소양 교육 및 워크숍 실시

구례 역사·현재 시책 등 과거와 미래를 잇는 교육 실시



구례군은 지난 13~15일 3일간 구례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규공직자 35명을 대상으로

로 '2023년 신규공직자 소양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양 교육에서는 공직 선배들의 직접 후배들에게 현장 적용성이 높은 실전 노하우 등을 말했다.

또한 공공데이터, 개인정보, 구례군 주요 시책 관련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특히 유영광 부군수는 후배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과 함께 공직자들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교육했고, 한장원 구례 문화원장은 구례 역사 교육을 진행하며 애郷심을 북돋웠다.

워크숍은 14일부터 1박 2일로 진행됐으며, 신규 공직자들은 노고단 등반, 선배 공직자와의 만남, 관내 주요 시설 견학 등을 통해 구례군에 대해 알아가고, 공직자 마인드를 함양했다.

김순호 군수는 "이번 워크숍을 통하여 신규공직자들이 군민을 위해 봉사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장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 '순항'

건립비 80% 도비 확보... 삼계면에 2026년 준공 계획

장성군이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장성 서부권 삼계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이 순탄하게 추진되고 있다.

서부권은 장성 청소년 인구의 24.6%에 해당되는 1230명이 거주 중임에도 문화·여가 활동을 누릴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 장성읍 소재 청소년 수련관까지는 거리가 멀어 접근성이 떨어진다.

군이 서부권 청소년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 기회가 없다는 응답은 67.8%,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71.8%로 과반수를 크게 넘어섰다.

이에 장성군은 삼계면 삼계고등학교 인근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해 서부권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한다. 건립지가 학교, 상무대 아파트와 가까워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좋다.

부지면적 3717㎡, 건축면적 1350㎡에 지상 2층 규모로, 설계 공모를 거쳐 커뮤니티홀, 방과후교실, 강의실, 동아리실, 노래연습실, 영화감상실, 실내외 집회장 등을 갖출 계획이다.

장성군은 올해 △기본계획 수립 △시방제정 투자 심사 △공유재산 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부지 매입을 완료했다.

최근에는 2024년 전라남도 전환사업에 선정돼 설계비 3억 원 지원이 확정되었으며, 내년 부터 실시설계 및 착공에 들어간다.

군비 부담도 적다. 총 사업비 76억 원 가운데 도비가 80% 수준인 61억 원에 이르며, 연차적 지원을 통해 군비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2026년 준공이 목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서부권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생활과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지원하도록 차질 없이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수권 기자

담양군, 택시 기본요금 4년 만에 인상...4000원에서 5000원으로

오는 12월 1일부터 본격 시행, 할증 요금은 동결

담양군은 오는 12월 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4,000원에서 5,0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담양군은 일반택시 36대, 개인택시 54대 등 모두 90대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으며, 담양군 택시 요금은 지난 2019년 6월 중순 이후 동결됐다.

담양군은 지난 10월 25일 택시 운임 요금·요금 협의회를 개최해 지역 범인 11개 택시회사 대표와 개인택시연합회(회장 김수곤) 대표, 모범운전자회 임원 등 택시업계 관계자들과 회

의를 진행해 지난 6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회 의결로 인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2km)은 종전 4,000원에서 5,000원으로, 거리 요금은 134m당 160원에서 130m당 160원으로, 시간 요금은(15km/h 주행 시) 32초당 160원에서 30초당 160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시계 외 할증(사업 구역 외 운행) 및 심야(오전 0~4시) 할증은 기존과 같은 20%로 동결했고, 호출비 1,000원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요금 인상은 '19년 운임 조정 이후 인

건비, 물가 인상 등 운송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 경영개선 및 처우개선을 위해 소비자 물가 인상 최소화 범위 내인 19.75% 인상을 권고함에 따라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인상을 결정했다.

조정·변경된 택시 요금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이번 요금 인상이 택시업계 종사자의 경영난 해소와 처우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교통업계 종사자의 복지 향상과 더불어 지역민의 보편적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판
-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날 포스코A&C